

풍부한 재생에너지… AI데이터센터 ‘최적지’ 주목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BS그룹, 민관 협력 개발사업 속도 632만평 부지 넓은 땅·산업용수 미래 첨단산업 입지로 관심 모아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개발 가속 국제학교·특급호텔 등 정주여건도 “규제 특례·인허가 간소화 등 필요”

전라남도 해남군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넓은 부지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최적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22일 BS그룹에 따르면 BS한양, BS산업, 전남도, 해남군 등이 함께 개발 중인 솔라시도는 대규모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으로, 국내 최대 수준의 일사량과 풍속 등 기후조건에 기반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갖추고 있다.

약 2090만㎡(632만평) 규모의 광활한 부지와 산업용수 등 첨단산업 유치에 필요한 핵심 요건을 모두 갖추며 AI 데이터센터 입지 경쟁력 역시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BS그룹은 앞서 TKG, 삼성물산, LG CNS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센터 전문 기업들과 함께 솔라시도 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어 최근에는 전남도가 ‘AI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부각됨에 따라 솔라시도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BS그룹은 RCS(Redlands Christian School) 국제학교, 호텔신라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원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소.

김양배 기자

와 특급호텔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솔라시도를 첨단 산업과 레저,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인프라가 균형을 이루는 미래도시로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유치 ‘활발’

현재 솔라시도 반경 15km 이내에는 다양한 기업이 총 4GW 규모의 육상태양광 및 수상태양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의 영산강 간척지를 태양광 집적화 단지(3GW)로 추진하고 서남해안권 해상풍력(7GW) 자원을 활용해 총 10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어 AI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로써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러한 강점 외에도 솔라시도 토지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의거한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고, 조성 공사가 상당 수준 진행돼 있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 지난해 6월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조성 부지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다양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기업도시 특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소득 및 법인세, 취득 및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다.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배출에 대한 국제 무역 규제 정책)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탈탄소 대응이 필요한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남도와 한국전력이

154kV급 변전소 등 전력인프라 조기구축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남도와 해남군의 지원 아래 AI 데이터센터 등 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러한 안정적 사업 기반을 토대로 솔라시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정돼 있는 전남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솔라시도가 지역 분산형 전력망의 효율적 활용과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특구로 지정될 경우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주거단지 개발… 정주여건 조성
BS그룹은 솔라시도 내 미래산업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병원과 국제학교 유치를 구체화하는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토지 및 주거단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BS그룹과 전남도, 해남군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RCS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학교 유치에 성공했다.

솔라시도에 국제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이달 말 학교 측 관계자 등이 솔라시도를 방문해 학교 부지 인근 사이트를 실사하고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BS그룹은 호텔신라와도 위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솔라시도 내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종합병원 유치와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 개발을 통해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천혜 자연환경 기반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즉시 개발이 가능한 넓은 부지, 풍부한 용수 등을 갖추고 있어 AI데이터센터 등 국내외 첨단산업 기업, 기관들의 투자 관심이 높다”며 “솔라시도가 대규모 첨단산업 클러스터 개발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정주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투자유치가 필요하고 투자 및 입주 기업, 기관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확대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솔라시도 개발 등을 기점으로 나아가 지역 발전까지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요 진입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다. AI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 특례 확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광주 방문의 해’ 글로벌 관광객 유치 본격화

市, 인도네시아 여행업계 ‘팸투어’ 소년의길 등 지역특화 콘텐츠 홍보 오사카엑스포 등 국제행사 참여도

광주광역시가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글로벌 관광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본격 나섰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공사는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업체 관계자 21명을 초청, 22~23일 이틀간 광주대표 관광지를 탐방하고 지역특화 콘텐츠를 체험하는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호남관광권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팸투어는 광주·전남·전북지역 관광공공기관이 공동 기획하고,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가 협업해 진행 중이다.

팸투어 전체 일정은 21~25일이며, 광주는 22~23일 이틀간이다. 앞서 21~22일에는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을, 24일에는 전북 전주를 방문한다.

‘광주 팸투어’는 광주의 역사성과 민주화 도시임을 강조한 특화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5·18민주화운동 테마코스 ‘소년의 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전일빌딩245 △광주향교 등을 방문한다.

광주광역시는 참가자들이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 가능성’을 점검한다. 참가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공사는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업체 관계자 21명을 초청, 22~23일 이틀간 광주 대표 관광지를 탐방하고 지역특화 콘텐츠를 체험하는 ‘팸투어’를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로 동남아시아장을 겨냥한 관광 상품화와 단체관광 유치 확대를 위한 후속 실무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또 오는 5월 영국의 대표 여행 인플루언서를 초청, ‘제2차 글로벌 팸투어’도 추진한다. △동명동 여행자의 ZIP(카페거리) △전일빌딩245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수제막걸리 체험 등 광주의 로컬과 이야기를 담은 명소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선보인다.

제2차 팸투어 참가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오는 6월4일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Tate Modern)에서 열리는 방한 관광상담회와 SNS·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일본과 대만 시장을 겨냥해 5월 중 ‘2025 오사카 엑스포’와 ‘2025 타이베이·신베이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 광주홍보를 운영하는 등 해외 마케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동남아와 유럽 등 주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과 현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2025 광주방문의 해’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시, ‘경계선지능 청년’ 사회참여 돕는다

‘일역량 지원 시범사업’ 추진 8주간 직무훈련후 일경험 제공

광주광역시가 ‘경계선지능청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돕기 위해 본격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재단,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과 손잡고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계선지능청년 일역량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오는 5월23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계선지능 청년’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낮은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으로, 이번 참여자 모집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무역량과 사회적 관계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월 청년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광주대표 청년정책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을 통해 구축한 기업·관계기관협력망과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단)의 전문인력을 결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광주에 거주하는 19~39세(1985년 6월2일~2006년 6월1일 출생자) 경계선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맞춤형 직무훈련 프로그램·일경험 △사회관계 능력향상을 위한 멘토링과 상담 등을 종합 지원한다.

올해 총 2차례에 걸쳐 8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수별로 40명을 직무 훈련생으로 선발한다. 훈련 결과에 따라 기수별 10명에게는 실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무 훈련생으로 선발된 청년은 전문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8주간 직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훈련 기간에는 교육수당 월 35만원을 지급하며, 일경험 기회까지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8주간의 일경험 기간에 총 140만원의 참여수당을 제공한다.

현장에는 직무멘토(지도원)가 함께 배치돼 업무 적응은 물론 대인관계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해 지원할 예정이다.

1기 훈련생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23일 오후 4시까지 구글링크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합심리검사 또는 웹슬러지능력검사 결과지 등 증빙서류를 이메일(ssgc.giyouth@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대 산학협력단(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5월28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각 게시될 예정이며, 개별 문자메시지로도 안내된다. 문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단으로 하면 된다.

정상이 기자